

濟州民俗마을의 觀光現象*

朴 賢 淑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개인생활의 수준에서 볼 때 생계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활동영역이 되고있다. 또한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수준에서 볼 때, 관광은 발전국가는 물론 제3세계를 비롯한 저발전국가에서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촉구와 전환의 기회로 삼는 전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관광이 현대사회에서 초점을 이루게 된 원인을 다음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관광이 시장경제성을 띤 새로운 분야로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광객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여행자의 출발과 도착을 수요공급법칙을 준수하는 수입/수출작용으로 기록하는 것이다(전경수, 1987:12).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79년도에 외국관광객이 소비한 88억

* 본 논문은 1988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석사 학위청구 제출논문인 “濟州島 ‘민속마을’의 觀光現象에 관한 研究”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현지조사시 도움을 주신 제주대학교의 이기욱선생님과 오석민씨 그리고 강기숙이장님을 비롯한 “민속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달라의 소득으로 관광이 네번째로 가장 큰 수출산업이 되었다(Business America, 1979. V. Smith, 1980: 14 재인용)는 지적인, 관광현상에 부수되는 경제적 잉여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재화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일(work)에 대한 윤리관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출세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변해간다(V. Smith, 1979: 57-58)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Ibid.) 단순히 재산의 축적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를 상실한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이 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일(work)에서 벗어나 여가(leisure)를 가지려는 인간의 욕구가 강해지고, 이에 그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데에도 기인하는 것이라 본다.¹⁾ 이와같이 일에 대한 윤리관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관광이 '대중관광'으로 변모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중관광의 도래는 앞서 언급한 관광산업을 급진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배경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원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광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현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들은 관광현상 가운데 주로 관광개발과 그 정책에 따르는 효과적인 시도나 그 대안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른바 관광개발계획 입안자로서의 연구역할의 산물이었다. 또한 외국문헌과 연구들에서도 관광이외의 주제들로부터 나온 부산물이거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국한된 관광발전 단계로서 설명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작금에는 일련의 인류학적인 접근방법으로 관광연구에 체계를 세우려는 학자들(N. Graburn, 1983, J. Jafari, 1979, D. MacCannell, 1984, D. Nash, 1978, T. Nuñez, 1977, V. Smith, 1980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광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인류학적인

1) 관광발달사 가운데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관광지로서 발달한 니스(Nice)의 경우(D. Nash, 1979)를 참조.

이론과 접근방법으로 분석하고 관광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T. Nuñez, 1963, G. Lewis, 1972 참조). 이와같은 연구작업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현상들을 접근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광현상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광체계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관광체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분석 틀로서 그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관광체계가 본 연구의 민속지적 기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제적인 관광현상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광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연구영역을 접목시키는데 그 중요성을 두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을 관광체계의 분석틀로써 민속지적으로 기술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민속마을”이 어떻게 유도되고 있는 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에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1.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우선 〈관광지 주민〉 〈관광객〉 〈관광 중개자〉의 세 범주로 나누어 관광지 주민 사회로서 그 마을에서 나타나는 각 특성과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관광지 주민〉 가운데 원주민의 경우는 이 마을의 관광중심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에 대한 부차적 분석단계로 관광의 영향(impacts)들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부터이지만 국내수요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으로서 관광유도를 목표로 본격적인 관광산업과 개발의 정책개입으로 관광지화가 시작된 것은 80년대 이후부터라고 봐야할 것이다.²⁾ 이와같이 제주도가 국내최고의 관광지로 조명을 받게된 원

2) 84년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국제자유지역조성 계획은 보류하고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개발방향을 조정하였다. 이후 국토개발연구원이 전담하여 대폭 축소, 수정작업을 한 것이 85년에 확정된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다(이상철, 1987: 45).

인을, 제주도의 관광매력(touristic attraction)에서 찾는다면 그 관광매력은 인위적인 개발 이전의 고유한 자원 그 자체에 있다고 하겠다. 그 자원의 원천은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도의 자연적인 경관이 뛰어나다는데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영주십경을 지칭할만한 독특한 경관과 사방이 바다로 접하는 해변이 있고, 기후조건상으로도 휴양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정취(아열대 식물을 맛볼 수 있는 이국적인 면)가 풍기는 이색적인 자연매력을 갖추고 있음에 틀림없다.

둘째,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는 한층 관광매력을 돋우고 있다. 예컨대 바람이 거세고 돌이 많아 쌓아올린 '돌담'과 낮으막한 '초가(띠)집'이 전형적인 거주양식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관광객을 유도하는 관광책자에서 제주도의 상징이 된 것이다. 즉 제주도 고유의 전통문화가 현재 제주도의 관광지화를 위한 기초가 되고있는 셈이다.

이와같이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관광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 관광매력은 관광지 주민이나 관광객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광중개자들의 개발에 의해 발굴되고 조장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이른바 '관광개발및 산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관광현상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의 관광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가운데, 관광개발이 자연자원을 근거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고유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지화를 촉구하기도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제주도의 "민속마을"이다. 이 마을은 제주도 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성의 보존이 강하므로 1984년에 '국가지정 민속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를 관광매력으로 삼는 관광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관광지주민사회>의 관광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이 "민속마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86년 3월 말에서 1986년 5월 말까지 두 달간에 걸친 현지연구를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관찰과 면담, 참여관찰을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중심 도로변의 <관광관람 초

가)를 대상으로 관찰을 하면서 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소위 관광 중개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차츰 마을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의 생계활동과 여가시간을 통해 참여관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지연구를 하는 가운데 곤란했던 점은 첫째, 제주도인들의 육지인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연구발표된 바 있듯이(유철인, 1986 참조), 외부인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태도에 의한 면담에서의 거리감이었다. 둘째, 본인이 관광객으로서 참여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현지연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미 본인의 신분이 연구원으로 밝혀진 뒤이므로, 관광안내원과 본인과의 관계가 〈관광안내원-관광객〉의 관계라기 보다는 〈제주도인-조사원(육지인)〉의 관계로 변함으로써 관광객으로서의 참여관찰이 어려워졌다.

3. 이론적 구성

관광체계라는 개념은 관광현상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기본틀임과 동시에 관광현상의 역동적 흐름을 통하여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광체계의 모형화에 앞서 “관광”에 대한 조작적인 용어정의가 필요한 바 다음과 같다.

관광이란 인간이 [A] 여가를 바탕으로 [B] 여행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에 대한 현시로서 [C] 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D] 문화적 현상이다.

[A] “여가(Leisure)”라는 개념은 일상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Work)”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여가”는 베블렌(Veblen)이 유한계급론(정수용역, 1981)에서 언급한대로 상류층에서 누리던 축적된 경제적 잉여의 개념뿐만 아니라, 조셉 피퍼(Josef Pieper, 1963)가 설명하는 인간 내부의 정신적인 태도나 가치관에 따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퍼가 설명하는 여가의 속성들 가운데 “축적형태로서의 경험”이라든지 “일의 세계의 일부로서 일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측면에 따르

면 여가의 개념으로부터 '놀이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빅터 터너(V. Turner)가 해석한 여가의 개념은 '놀이'와 '여가' 그리고 '관광'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가는... 사회구조적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이며 관념과 환상과 말... 그리고 사회관계들을 통해 놀이할 수 있는 자유이다. '여가' 자체는 관광객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 대신 여가시간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에게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관광은 위세와 보람과 가치를 주는 놀이 형태이다(J. Lett, 1987: 126).

(B)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험”의 욕구는 인간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접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경험(체험하며 배운다는 의미도 포함)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것은 내면적인 욕구이면서도 외부환경에 의해 조장되기 쉬운 욕구심리이기도 하다. 즉 현대사회에서와 색다른 민족적 경험을 원하는 ‘민족관광(ethnic tourism)’(K. Adams, 1984 참조)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경향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욕구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때 ‘여행’이 동반된다. 이는 “일단 집에서 벗어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의미하고 의도적으로 안정된 집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시험하는 의미가 더 강했다고 본다. 여기서 “여행을 통한다”는 것은 집을 벗어나므로 단거리이든 장거리이든 반드시 교통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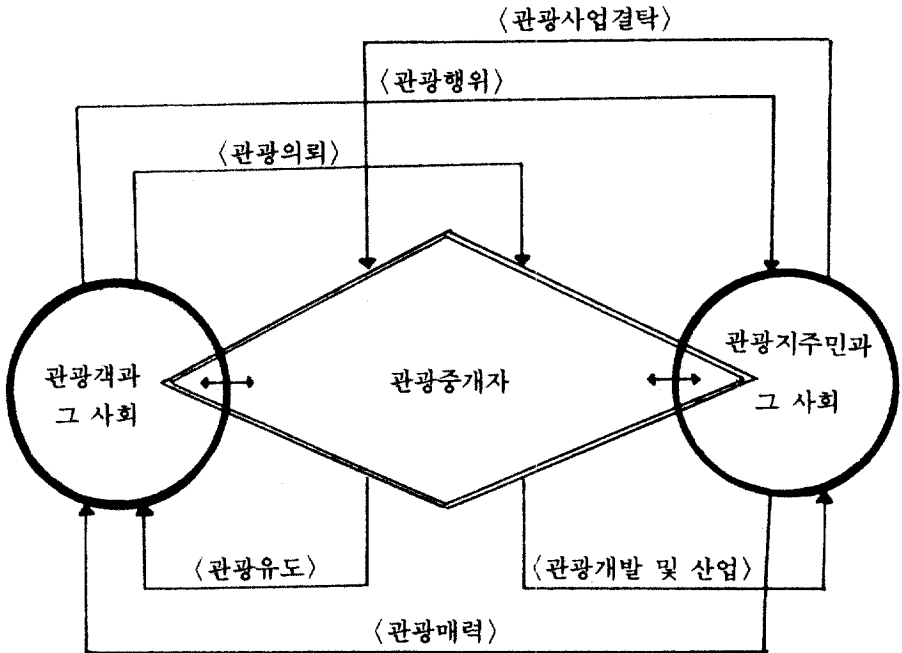
(C) “체계를 이룬다”는 것은 관광현상들이 상호관계를 이루는 역동적인 흐름속에서 환류(feedback)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관광은 사회의 발달과 분화 또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 하거나 성격이 변화되면서 방향성을 띠는 가운데 관광현상들간의 상호작용은 환류현상을 일으킨다.

(D) “문화적 현상”이라고 본 것은, 여기서 문화의 개념을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서 “통합적인 상징체계(기어츠의 견

해)”)로 간주함으로써 관광현상을 문화범주의 연구영역에서 다룰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이에 따르는 제반 개념들의 설명을 통하여 앞으로의 관광체계 모형화에 밑바탕을 이룰 것이다.

관광체계의 모형은 <그림1>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관광객과 그 사회> <관광 중개자> <관광지 주민과 그 사회>의 세 가지 범주로서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관광연구 가운데 발린 스미스(V. Smith, 1977)는 관광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주인(host)과 손님(guest)의 두 범주로 나누었는 바, ‘주인’으로서의 성격이 애매모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인은 실제로 조사



<그림1> 관광체계 (Touristic System)

한 바에 따라 〈관광지 주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성격이 관광과 관련된 잇권에 따라 분리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관광 중개자〉라는 범주의 필요성으로 두 범주만의 부적응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관광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관광 중개자〉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모델 수준이 지역사회(국가)적이든 국제적이든 간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세 범주들은 각각 관광현상을 일으키는 변수들에 의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영향(impact)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광현상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범주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관광객과 그 사회〉는 관광을 생성시키는 근원으로서 여가를 창출시키는 관광체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광지역의 '관광 매력(touristic attraction)'을 느끼므로써 '관광행위(touristic behavior)'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관광객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객의 관광행위는 관광지에서의 행위뿐 아니라 관광을 하기로 결정하는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일련의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한 관광매력을 모색할 때 그것은 평소애 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느낄 수 없는 요소들로 대부분 차지할 것이다. 예컨대 도시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전원의 목가적인 자연환경에서 관광매력을 찾아가자 한다. 이러한 양상은 그래이번이 제시하고 있는 "전도의 유형"(N. Graburn, 1980 참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관광객들은 관광을 통해 경험하고 싶어하는 변화를 선택할때 자신의 본토생활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특정한 요인들을 선택한다(N. Graburn, 1987: 45). 따라서 관광객이 경험하고자 선택하는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그 문화의 일상적 생활을 위한 제도에서도 잠재되어 있을지 모를 변화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관광양식의 표현이 문화변동의 출구임을 말해준다.

관광객들은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설이용 등을 위해 관광중개자에게 '관광의뢰(touristic commission)'를 한다. 이와같은 관광의뢰는 관광객이 직접 관광지를 찾아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점에서 부터 숙박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르기까지 관광

중개자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이루어지게 된다. 관광객들의 관광 의뢰에 의거한 관광의 집중은 관광중개자로 하여금 관광사업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대중관광으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B〕〈관광중개자〉는 나머지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입장이며서도 나머지 두 범주에 각각 속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관광 중개자가 속하는 특정 범주에서 이해관계에 따르는 구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광지 주민사회〉에서의 관광 중개자는 주민으로서의 ‘내부관광중개자’와 외부인으로서의 ‘외부관광중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광중개자들은 〈관광지 주민과 그 사회〉에 ‘관광개발 및 산업(touristic development & touristic industry)’을 통하여 ‘관광유도(touristic lure)’를 시행한다. 예컨대 관광알선을 해주는 여행사에서는 관광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자연경관이나 풍물을 팸플릿에 소개하고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는 관광지역에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최고급으로 갖추므로써 관광객들의 관광선호도를 높이고자 한다. 즉 그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배경’(D. MacCannell, 1987 참조)³⁾을 이루는 상황을 이룩한다. 여기서 ‘관광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프만(E. Goffman, 1959 참조)의 사회제도/구조의 구분으로서 ‘전면부’와 ‘후면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프만은 특정한 연행(performance)에 있어서 그 기능에 따라 역할 구분을 하였는데, 즉 〈연행자〉와 〈관람자〉 그리고 공연에서 연행을 하지도 않고 관람하지도 않는 〈이방인〉으로 나누었다. 이와같은 구분을 관광배경 속에서 적용시켜 본다면 〈연행자〉는 〈관광중개자〉이고, 〈관람자〉는 〈관광객〉이며 〈이방인〉은 곧 〈원주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프만이 보는 바대로 연행자가 전면부와 후면부에 모두 등장할 수 있듯이 관광중개자 역시 전, 후면부에 모두 관여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관광 중개자들은 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3) 맥켄널(D. MacCannell)이 사용한 의미로는 ‘무대배경’과 ‘관광배경’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서는 ‘무대배경’을 포함한 것으로 사용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무대의 전면부가 아닌 후면부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계획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고유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은 '진짜'를 보기 위해 무대의 전면부를 벗어나 그 뒤에 감추어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즉 관광 중개자들은 '진짜'라고 여겨지는 감추어진 상황을 관광객 모르게 '무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광중개자들이 원주민으로 가장하는 "연출적 관광유도(dramaturgical touristic lure)"이다. 사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고유성'의 의미가 관광의 성공여부를 재는 척도로 사용(K. Adams, 1984: 472)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라고 간주되는 것은 실체의 구조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연(D. MacCannell, 1987 참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관광중개자들은 관광배경의 고유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적이고 민속지적인 민속품들을 발굴하여 관광배경의 고유성으로 정형화시키고 결국 상품화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상품화(commodification)'한다는 것은 관광배경을 이루는 지역의 '향토색'을 이용하여 하나의 포장된 물건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Greenwood, 1977 참조).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관광배경이 되는 지역의 전통성이나 고유성을 의미하는 문화를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여 험값이나 고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지역 주민사회의 문화를 금전적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데에 있다.⁴⁾

관광중개자들의 활동내역은 '관광유도'라는 동기뿐 아니라 '관광의뢰(touristic commission)'와 '관광사업결탁(touristic business collusion)'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출적 관광유도를 관광 중개자들의 독단적

4) 그린우드(D. Greenwood, 1977)는 문화를 '미끼'나 '자연자원' 또는 '서비스'로 보는 입장과는 달리, 고유성(authenticity)과 그 고유성이 생활경험에 부여하는 도덕적 색조를 갖는 것으로서 삼고 있다. 따라서 서민생활의 신성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이 기념품화 또는 장신구화의 과정을 거쳐서 고급문화계층의 세속영역 속에 편입(전경수, 1987: 22)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문화개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의 폐해성이라 하겠다.

행위로서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와같이 현대사회의 관광현상에서 나타나 는 관광중개자의 역할수요에 있어 그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중관광’의 현 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C〕 〈관광지 주민과 그 사회〉에서는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주민들과 그 밖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관광지 주민 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사회가 관 광지역인만큼 필수적이며, 결국 주민간의 충돌문제들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관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관광지주민 사회는 관광객을 제외한 주민의 구성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본래 종사해오 던 생계활동을 유지하는 원주민들과 그 지역이 관광지화됨에 따라 상업을 목적으로 유입해 온 상주자들, 그리고 원주민들 가운데 일부 관광업으로 전 환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후자의 두 가지 경우는 관광 중개자 에 속하는데, 이들은 관광지 주민사회의 주민으로서 상주한다는 점에서 ‘내 부관광중개자’라 불리고 ‘외부관광중개자’와 구분된다.

한편 관광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관광객을 수용하는 곳이 되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문화가 이입된다. 관광은 여행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교문화적인 접촉(encounter)을 불가피하게 만 들어 내는데(D. Nash, 1981: 462), 그러한 연속적인 접촉은 사회적 거래 (social transaction)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체계를 이루는 세 범 주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주민사회의 범주는 나머지 두 범주에 의해 문화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사실들은 관광지 주민사회에서의 관광개발이 주로 외부의 관광 중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관광개발 및 산업(touristic development & touristic industry)’이 관광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관광개발 진행에 따른 서구화된 환경의 이식⁵⁾은 관광 중개

5) 관광객들을 위해서 서구풍의 호텔과 위락시설을 갖추고, 이를 위해 건축자재를 비롯한 음식재료들을 수입해야하며 심지어 서구식의 태도와 서비스 그리고 패션(fashion)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자들이 어떤 이익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동화(assimilation)'에 의한 것이다. 관광지 주민사회의 정책자들(관광 중개자에 포함)에 의한 정치적 결정과 실행은 그 지역사회나 국가의 관광수용에 있어서 크게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관광소득'이라는 이득이 관여되는 만큼 그 집단의 '적응전략(adaptive strategy)'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주민사회는 외부문화에 의도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반면, 문화접변이나 동화에 대한 저항도 수반될 수 있으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혼합주의(syncretism)를 내포한 조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A. M. Ervin, 1980 참조).

관광지 주민사회에 있어서는 관광 중개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적응전략뿐만 아니라 그 지역 원주민들의 적응전략적 반응에 의한 문화변동의 과정도 관광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즉 관광배경에서 이방인이던 원주민이 점차 관광중개자를 매개로 관광사업을 전개시키므로써 ('관광사업결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새로운 문화이식을 감행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지 주민사회>에서의 문화변동은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사회>와의 단순한 두 범주간의 문화적 접촉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광중개자>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거래'에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지 주민사회> 집단의 '적응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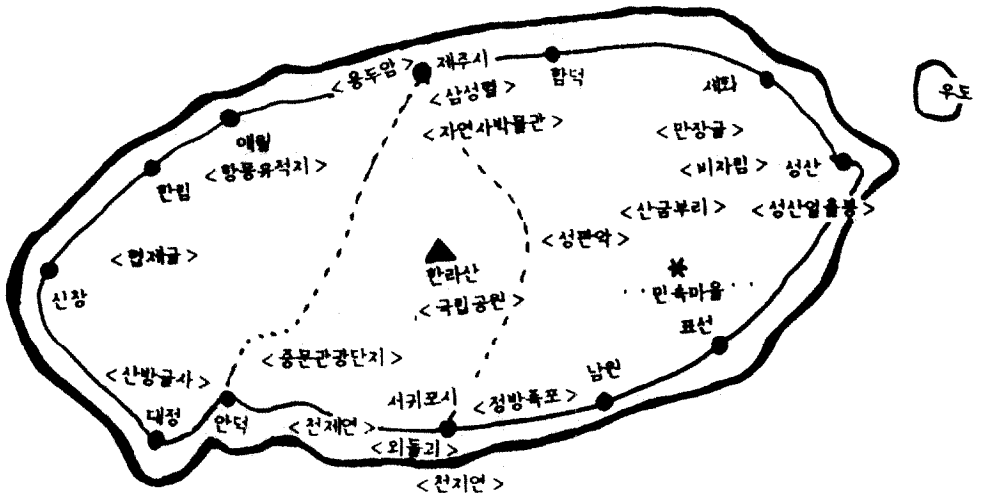
이상으로서 관광체계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다루어 보았다. 관광체계를 이루는 각 범주들마다의 특성과 그에 따른 상호관계 속에서 관광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측면들을 살펴보았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될 수 있는 관광현상의 분석기준들로서 "민속마을"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관광현상들을 접근분석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II. “민속마을”의 일반적 개관

1. 지리 및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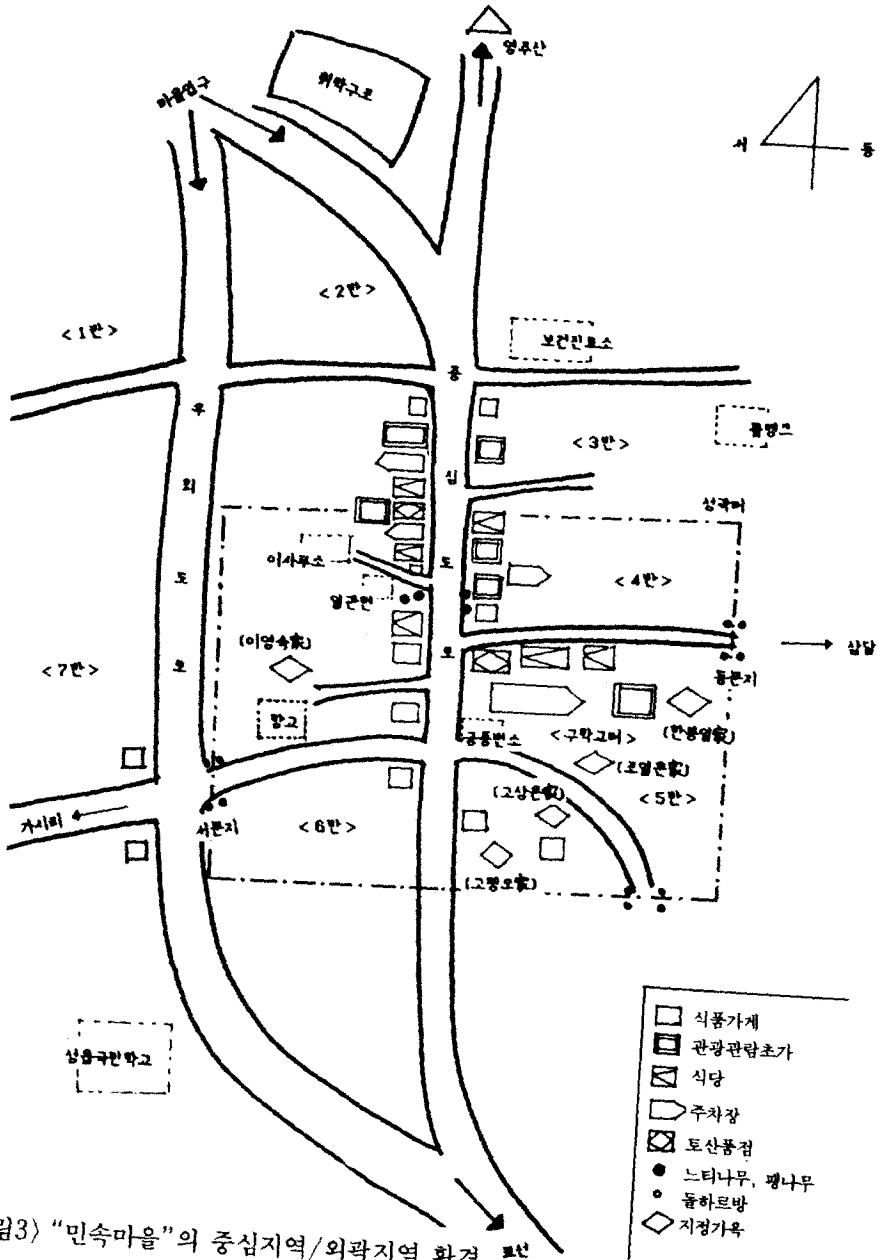
1) 지리적 배경

이 마을은 해발 120m지점에 위치하는 중산간 촌락으로서 해변지대보다는 기온이 낮아 서늘한 편이다. 제주시에서 표선행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가면 <○○민속마을>⁶⁾이라는 커다란 간판과 함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초가지붕이 얹으막하게 돌담을 끼고 있는 마을이 보인다. 이 마을로 가는 양쪽에 펼쳐진 야산에는 목장과 억새풀이 우거진 들판이 보인다. 북쪽에 위치한 영주산(325m)을 대표로 크고 작은 구릉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그림2) 제주도내 “민속마을”의 위치

6) 본 논문에서는 이 마을 행정상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같이 마을입구의 간판에 표기된대로 “민속마을”이라는 명칭을 고유명사에 대신하여 쓰기로 한다. 이 마을은 행정상 1리와 2리로 나뉘는데 1리는 300여 가구를 이루고, 2리는 약 50가구를 이루고 있다. 보통 “민속마을”하면 1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도 1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림3> “민속마을”의 중심지역/외곽지역 환경

있는데 이 구릉들을 ‘오름’이라고 부른다. 오름의 낮은 지역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름의 군데군데에는 무덤들이 있고, 밭 한가운데도 장방형의 돌담이 둘러진 무덤이 있다. 그리고 짐울타리는 물론, 무덤 주위와 밭의 경계선도 돌담으로 쌓여있는 것이 특색이다. 밭에는 돌담 이외에도 ‘쑥대낭’이라는 측백류의 방풍림이 둘러있어 돌담과 함께 바람이 비교적 거센 이 지역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 마을의 내부로 들어가면 (<그림3>참조) 포장도로가 되어있는 길 양쪽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그 옆에 옛 행정관청이었던 <일관헌>이 있는데 이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이내를 ‘성(城)안’이라고 부른다. 이 성안은 관광 중심지역으로서 상점과 식당들이 운집해 있고 <남제주군 지정관광 관람초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마을에는 성안을 통과하는 도로외에 다른 이웃마을과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있다. 이 도로는 아직 (관광)교통도로로써 이용되고 있지않아 이 주변은 한산하고 주로 밭과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용 교통도로가 될 것을 예상하여 상점이 생기고 있다. 우회도로는 행정구역상 1반과 7반을 포함하여 나머지 반들과 구분되는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즉 이 마을이 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회도로변의 행정구역은 성안의 상업중심지와 거리상 떨어져 있고 농사에 주력하므로 관광지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않는다. 따라서 성안의 ‘관광중심지역’과는 달리 ‘외곽지역’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 마을입구의 어귀에는 ‘취락구조(주거환경변화에서 설명)’라고 하는 일군의 주거지가 있다. 마을의 공공시설물로는 이사무소와 최근에 지은 건축물로 초가지붕형태를 이루는 보건진료소와 공중화장실이 있다.

2) 역사적 배경

“민속마을”은 약 500여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소재지로서 지켜왔으므로 그 영향으로 아직도 ‘정의고을’ 혹은 ‘정의골’, ‘정골’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제주도가 정의현/대정현/제주목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을 시기에 이

마을이 정의현의 현청소재지가 된 것은 세종5년 1423년 이후부터라는 기록(이원진의 “탐라지”, 김영돈 1983 참조)이 있다. 원래 정의현의 현청소재지였던 성산면 고성리는 우도에 가까워 태풍에 의해 자연조건이 열악했고 왜적의 침입이 잦았으므로 세종 5년에 진사리(현재의 “민속마을”)로 현청사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마을에는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굳게 쌓았던 성벽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상의 변화⁷⁾는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크게 좌우하는데 그 흔적으로 이 마을에는 성곽터 이외에 현감(원님)이 마시던 우물터, 죄수를 가두었던 옥터 등이 남아있고, 실제로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로서 현감의 행정처였던 현청사(일관현으로 명칭이 바뀜)와 향교, 그리고 성문을 지키던 돌하르방 12기가 있다. 이러한 유형적 잔존뿐 아니라 ‘원님’과 ‘향연’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듯 (주민들과 민속학자의 추측) 여러가지 토속적인 민요(노동요와 창민요)가 가장 잘 전수되어 왔고, 그러한 분위기도 그대로 간직되어 오고 있는 듯하다. 즉 “500여년간 행정도움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 마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 그 자체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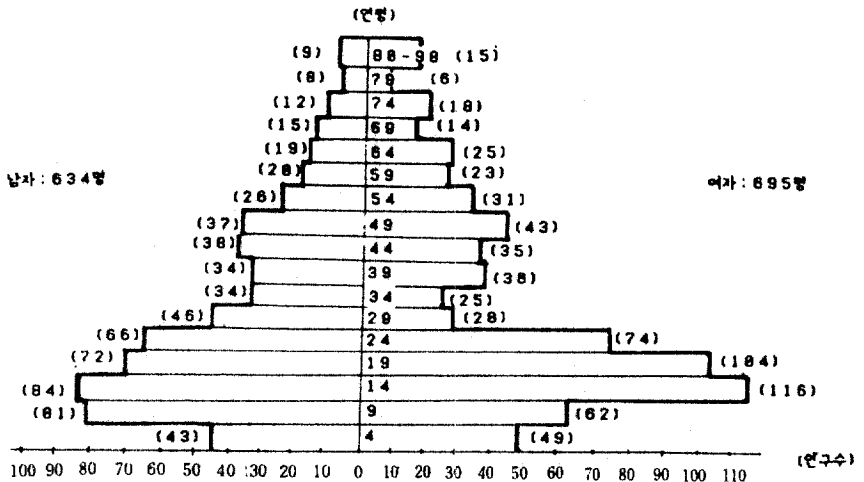
2. 인구구성과 생계활동

1) 인구구성

이 마을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그림4>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인구분포도가 피라미트형을 이루는 가운데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60여명 정도 더 많고,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의 숫자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이 연령층에서는 여자의 숫자가 열세하다).⁸⁾

7) 1864(고종원년)년에는 정의현과 대정현을 승격하고 군제를 실시하여 군수를 두었다가 1880년에는 현으로 고쳐 현감을 두었다. 1895년에는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제주를 부(府)로 고쳤으며 목사(牧使)를 관찰사로 바꾸었고, 1906년에는 목사제도를 폐지하고 군수를 두었으며 1914년에는 ‘정의’, ‘대정’의 두개 군을 폐지하여 제주군에 합병시켰다.

8) 이런 특성은 마치 전자의 경우 ‘제주도에는 여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과 후자의 경우 ‘농촌에는 젊은층 특히 젊은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반적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민속마을”의 성별/연령별 연구분포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1981. 1-1986. 4)〉에 따르면 이 마을의 약 80가구가 주로 제주도내의 시와 육지로 진출하였고 이와 비슷한 수의 가구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전출입자 가운데는 〈주민등록표〉의 기록과는 별도로 이 마을을 드나드는 주민들이 있다. 즉 일단 전출신고를 해놓고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이 다시 이 마을을 떠나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일명 ‘실업자’에 속하는 주민들로서 일정한 직업을 찾기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상태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전출입에 의한 인구이동이 잦아지는 한편,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9) 전입한 가구의 구성원보다 전출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더 많으므로 인구변화에 있어 가구수는 거의 일정하고 인구수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보건진료소(1986. 1)〉자료에 따르면 총인구 1329명(남: 634/여: 695)에 가구수가 316가구였는데, 〈김영돈 1987(1986. 11)〉자료에 따르면 총인구가 1286명(남: 634/여: 666)으로 감소되고 가구수는 여전히 316가구였다. 이는 전입한 가구가 외부의 상인들로서 이 마을에서 상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 가구당 일부 구성원만이 전입한 데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있다.

2) 생계활동

“민속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이 관광지화를 이루기 훨씬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생산활동으로서 농업을 기반으로 종사해왔으나, 최근에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활동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이 마을이 관광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의 하나로서, 외부에서 상업종사자들이 이 마을로 유입해 오는 한편 이 마을 토박이들 가운데도 상업활동에 대해 고조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아직도 이 마을에서의 주요 생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에 있어서 재배품목의 변화가 계속되고, 10여년 전부터 축산업과 과수 재배 등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산뽕, 콩, 조, 피 등의 곡식류를 주로 재배했는데 요즘에는 당근과 유채를 주로 심고 밀감재배를 확장하고 있다.

[A] 당근재배: 이 마을에서는 3-4년 전부터 당근재배가 활성화되었다. 주민들이 당근을 재배하면 육지의 상인들이 당근을 캐 무렵(4월)에 당근밭을 사러 이곳으로 오는데, 판매가격은 수시로 변한다(금년에는 평당 천5백원에 판매되었다). 당근을 밭빼기로 사들인 상인은 자력으로 고용인을 동원하여 당근을 캐어 운반해 간다. 당근가격이 육지당근의 생산량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주민들은 “당근 농사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당근농사가 까다로운 것은 7월에 파종한 당근이 밭아 시기가 될 무렵 종종 폭우의 피해로 유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B] 유채재배: 유채재배는 제주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을도 예외없이 각 가구당 거의 3천평(이상)정도의 유채밭을 소유(소작도 포함)하고 있다. 유채는 6월 초순을 전후로 해서 베기 시작하는데, 이때 비가 와서 미처 베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수확에 손실이 커진다. 유채는 정부에서 일괄하여 수매를 하는데 유채의 수익성은 감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즉 천 평을 심어야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농약과 비료값, 인건비를 제하면 20

만원정도의 순수익이 계산된다고 한다.

〔C〕 밀감재배: 이 마을은 기후 조건상 밀감재배가 어려운 편이지만 하 밀감재배가 가능하게 되자 당근이나 유채밭을 과수원으로 서서히 개조하고 있다. 밀감재배가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재배과정이 힘들어도 시작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밀감재배를 하고 있는 가구를 보면 시기에 맞추어 농약을 뿌리고 전정을 하는데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즉 전정을 하기 위해서 서귀포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충해방지를 위해 농약살포도 6-7번 정도 해준다. 만약 밀감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잎사귀가 말릴 경우에는 그 해 수확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 된다. 밀감재배를 하는 H씨(남: 30대)의 경우 3천평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1년에 나오는 천백만원의 총수입 가운데 농약 및 비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3백만-4백만원의 순수익이 남는다고 한다.

〔D〕 축산: 균유지를 마을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뒤에 일부 주민이 정부로부터 용자를 받아 축산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 당시(1982) 암소 한 마리당 가격이 2백만원 이상이었지만 85년 이후 소값의 하락으로 비육우 중심의 축산업은 불경기를 맞게 되었다(C씨의 경우는 축협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용자액에 대해서 원금및 이자상환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되었다). 비육우 보다는 젖소를 키워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이 훨씬 수익성이 높으므로 점차 낙농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직도 낙농을 경영하는 가구가 드문 편인데, 그 중 한 목장에서는 현재 10마리의 젖소를 키워 8마리를 착유시키고 있다. 하루에 20kg짜리 우유통으로 6통씩 생산되는 목장우유는 제주우유 회사에서 매일 수거해 가는데 지방률에 따라 가격차가 있지만 보통 110kg이면 3만5천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6통의 우유가 생산된다면 4통값은 사료비로 들기 때문에 2통값(만2천원정도)만 순이익으로 남는다고 한다.

〔E〕 고사리 채취: 이 마을에서 고사리 채취는 부녀자들의 소관으로 가계수입원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부녀자들은 '고사리 장마'('고사릿마'라

고 부르는데 4월 중순경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장마)를 전후로 즉 4-5월에 걸쳐 들과 오름을 돌아다니면서 새벽부터 어둑해질 때까지 '구덕'을 지고 나가 고사리를 꺾어온다. 비교적 건강한 부녀자들은 한 두달 동안 계속 작업하고, 육순 또는 칠순이 된 할머니들도 고사리 채취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고사리 채취에 의한 수입은 얼마나 캐느냐에 달린 것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들까지도 동원이 될 정도이다. 고사리를 삶은 다음 말려서 모아둔 것을 상인들이 오면 근 당 3천7백원에 팔고 관광객들에게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도 한다. 고사리는 주로 상인들에게 다량으로 넘겨진다. 이렇게 해서 고사리 수입은 10만원정도 되고, 많이 채취한 가구의 경우 한 철에 30만원의 수익도 올린다.

〔F〕 무우생기리 작업 : 겨울철 주요 수입원이 되는 이 작업을 위해서는 부녀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거들어 주는데 주로 경운기에 기계를 달아서 무우를 썰어내는 작업을 한다. 무우를 기계로 썰어낸 다음에, 수확하고 난 빈 밭에 '밭'을 깔고 그위에 말려낸다. 이렇게 하여 보통 100관 내지 200관 정도의 무우생기리를 생산한다. 이 무우생기리는 중간상인을 통해 1관당 천5백-2천원 정도에 팔린다.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가구에서는 천 관 이상도 생산해낸다고 한다. 무우생기리를 할 때는 "눈이 팡팡오고(주민들의 표현)" 추우므로 무척 고생스럽지만 수익성이 좋은데다가 무우는 토질에 구애받지 않고 잘된다.

〔G〕 품노동 :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바쁜 농사철이나 특별한 시기에 일손을 도와주는 품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품노동에 대한 품값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노동의 종류도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된다. 즉 남자들의 경우, 집수리, 두엄만들기, 과수원 작업(밀감전정및 농약살포) 등을 주로 하며 품값으로 일당 만원에서 2만원 까지도 받는 한편, 부녀자들은 주로 당근캐기, 출배기, 비료주기 등으로서 밭일에 동원되며 품값으로 일당 5-6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품노동은 반드시 실업상태가 아니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일손을 도와주는 품앗이의 상황에서 관행되기도 한다.

[H] 상업: 이 마을에서의 상업활동은 주로 중심도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대를 이어 이 마을에서 50여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S씨(남: 50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 자신의 가게 하나뿐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열군데 이상의 가게가 늘었고, 처음에는 주민만을 상대로 판매하였는데, 요즘들어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도 예전과는 달리 채소류 등 반찬거리를 가게에서 조달하고, 아이들의 군것질도 늘어나는 등 소비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가게는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식품가게뿐 아니라 관광객을 상대로 '향토음식(메밀국수, 돼지불고기, 빈대떡, 좁쌀막걸리 등)'을 파는 식당들이 점심시간을 전후로 붐비고 있다. 이런 식당에서 종사하는 부녀자들은 모두 이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마을” 주민들은 남녀 모두 생계활동에 참여하고, 비교적 노인층의 참여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은 요즘 “농사가 잘 안된다”라는 걱정을 한다. 이 마을의 땅이 척박하여 예전부터 농사가 어려웠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러한 걱정이 더 부각된 것은 농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거래에 의한 소비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농사품목으로 주로 유채, 당근, 콩, 산뽕, 무우 등을 시기별로 갈아서 소득을 얻지만 당근만해도 판로가 막히는 해에는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협에 빚을 진 상황에 있고, 더우기 연체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영농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곤경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마을의 관광지화에 따르는 상업활동의 활성화는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Ⅲ. “민속마을”의 관광현상

1. “민속마을”의 관광지화

1) 관광지화된 배경

이 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관광지화된 배경으로서 우선 이 마을의 관광매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관광지로서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대로 제주도를 대표할 전통적인 요소들이 가장 짙게 남아 보존되고 있다. 이 마을은 500여년 동안 행정도읍으로서 현소재지였고, 70년대 이전까지 교통도로가 놓이지 않아 거의 고립되다시피한 지역으로서 전통의 전승/보존이 유리한 지역적 조건에 있었다. 현재 전통가옥과 민요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팽나무등 자연적 유물(천연기념물 제161호: 1964년 지정) 등이 보존되고 있다. 이에 문화공보부에서는 1977년 6월에 이 마을을 “중요민속자료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어서 1984년 6월에 “재중요민속자료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도(道)지정을 거쳐 국가지정으로 보호구역이 되기 위한 기준이 전통적 요소에 있었다면 이 마을 이외에도 제주도 내에서 몇군데 더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¹⁰⁾ 국가지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고, 일부는 찬성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관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마을이 관광지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연적 요소들(관광매력으로서의 전통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위적 요소들(정부에서의 관광지화 계획이라는 정책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소극적 반응으로서 한림읍의 경우와 같은 대응적 행위의 결여)이 함께 작용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정부에서 이 마을을 〈중요민속자료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주민들 재량에 따른 가옥 증축과 변경을 제재하면서 불명확한 관광개발계획으로 10여년을 끌어왔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후자의 배경요소가 확실해진다.

10) 이 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될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 마을외에 한림읍의 한 마을을 지목하고 있었는데, 그럴즈음 그 마을주민들이 반발을 아주 심하게 했다고 한다. 즉 그곳 주민들이 지붕을 슬레이트로 전부 바꾸어 버림으로써 행정당국의 의도를 초기에 꺾어버렸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1984년 국가에서 〈민속마을〉로 지정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 일부에서는 가옥을 개조하고 일부에서는 단속으로 수리도 못하는 등의 혼란을 겪어왔다. 84년도 지정 이후 정부에서는 이 마을을 중요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한 우선 정책으로서 가옥에 대한 개별적인 개조나 수리를 일체 금하고 이미 변형된 가옥을 초가집으로 원상 복귀하는 복원개발공사 사업을 1986년부터 추진하는 발표를 하였다.¹¹⁾ 이와같은 국가지정의 계획과 개발의 의미가 민속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이 이 “민속마을”을 관광지화하는 정책적 차원의 승인이라는 점을 또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2) 주거환경의 변화

이 마을은 성터를 경계선으로 성안과 성밖의 가옥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이는 행정도읍으로서의 면모가 성밖보다는 아무래도 성안에 더 갖추어져 현재에 이른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민속마을〉지정에 따라 전통성의 판별기준을 가옥에 중점적으로 두고 그 제재가 성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가옥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변화에 관건이 되어왔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이 마을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하는 붐이 일어났다. 제주도 가옥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지붕의 형태와 그 재료는 특이하고 전통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재료로 쓰이는 ‘새(띠)’는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구하기 어려워지는 실정이라니와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 가옥에서는 띠지붕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슬레이

11) “남제주군에서는 새해 1억9천2백만원을 들여 민속마을 내의 주요문화재인 초가를 매입 또는 보수하기로 하고 슬레이트 등으로 변형된 가옥 50채는 초가로 원형복원하는 한편 4백48채의 초가지붕잇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1985년도에는 1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정의향교보수와 공중화장실 신축, 초가보수, 초가지붕잇기, 안내관 등을 시설했지만 1987년부터 성지복원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속마을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로 했다”(제주신문 1985. 12. 2).

트 혹은 합석(슬레이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지붕으로 개조하였던 것이 다.¹²⁾ 이러한 지붕개조는 성안보다 성밖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붕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함께 개조하였다. 즉 옛 가옥의 빗장문과 창호지문을 알루미늄틀이 달린 유리문으로 바꾸고, 굴목(아궁이)을 연탄보일러로 바꾸었다. 이와같이 대부분 개조한 가옥의 공통점은 옛 가옥의 쪽마루(난간) 부분에 현관문으로서 유리샤시(알루미늄틀)문을 달았다는 점이다. 제주도 가옥의 특색은 한 울타리 안에 독립된 가옥으로 '안거리', '밖거리'로 나뉜다는 점인데 대체로 개조하는 부분은 안거리가 된다. 밖거리는 거의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넓은 정지(부엌)를 이용하고 있다. 옛 굴목이 있는 정지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한 음식준비와 고용인들에게 한꺼번에 음식을 대접할 때에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 개조된 가옥은 깨끗하고 편하면서도 농촌으로서의 거주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개조된 것은 변소이다. 그 명칭도 재래식 변소와 구별하기 위해 '개량변소' 또는 '화장실'이라고 부른다. 1984년도 제1차 개조시에는 개별부담으로 하였지만 1985년도 제2차 개조시에는 정부에서 가구당 20만원씩의 보조를 받아 완전히 바꾸었다. 일제히 개조했기 때문에 그 구조와 모양이 한결같다. 즉 초가지붕형태에 수세식은 아니지만 사기변기가 달려있고 내부에는 정화조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 마을의 일부 가옥에서는 개량변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도 돼지를 키우거나 거름을 만들기 위해 재래식 변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흡사 도회지 풍경을 자아내는 단층양옥의 주택단지인 '취락구조(마을주민들이 부르는 명칭)'가 있다. 이 취락구조는 행정상 2반에 속하는데, 이 마을이 <민속마을>로서 관광지화됨에 따라 그 대상구역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따로 지어준 것이

12) Y씨(남: 60대)는 큰아들을 혼인시켜서 집을 물려주고 성밖의 지역에 노부부가 거주할 집을 손수 지었는데 초집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붕을 해마다 이을 힘이 없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다. 이 취락구조에는 현재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개인비용 5백만원에 20년 상환의 융자금 4백 30만원을 받고 6년 전에 설립된 것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성안의 복잡한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깨끗해서 살기는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빗없이 살았는데 이 주택마련을 위해 융자금을 얻은 것에 대한 이자와 빚을 갚느라고 힘이 든다고 한다(그 빚을 갚기가 어려워 두 집이 팔고 이사갔다). 농업에 종사 하면서 취락구조에 살고있는 주민에 의하면,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데 이 집들은 도회지 사람한테 맞게끔 지어졌다고 한다. 즉 취락구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깨끗하고 보기좋은 집과 실제로 농사일을 하는데 편리한 집을 동시에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주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행정당국에서는 이 마을을 대상으로 초가지붕 복원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속마을”의 가옥지붕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민속마을” 가옥지붕 형태(남제주군청 자료: 1986년 현재)

건 축 물	초가지붕	기 와	슬레이트	기 타
773동	448	26	273	26

이미 슬레이트나 기와지붕으로 개조했던 주민들은 초가지집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는 장점을 알면서도 개조했던만큼 다시 초가지붕으로 바꾸라는 시행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초가지붕 재료비용(‘새’ 30단에 1만 5천원)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만 문제는 그 재료를 한꺼번에 어디서 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들에 볏을 놓을 수 없으므로(금지사항) ‘새’가 잘 자라지 않고, 따로 새농사를 하지 않으므로 다량의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마을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전통가옥 복원 계획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가옥의 내부시설이 개조되는 과정 속에서 당국에서 숭선하여 개량변소를 설치하는 한편, 전통가옥

을 복원하고자 지붕을 초가로 덮으려는 계획은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¹³⁾이 있는 것이다. 결국 개량변소로 바꾼 것은 관광객들(외부인)에게 불결한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고(재래식 변소를 경험한 외부인들이 아연실색하며 불결함을 진정하니까 일체히 서둘러 바꾼 것이며) 전통가옥 복원으로 초가지붕을 덮으라는 것은 역시 관광객들에게 민속마을로서의 면모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¹⁴⁾

행정당국의 전통가옥 복원계획에 따른 가옥제재는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특히 성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옥 변경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도로변의 차량혼잡으로 경운기 출입이 부자유스러워 성밖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을의 주거환경이 점차 중심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중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이나 외부인(관광중개자)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우회도로가 관광교통도로로 이용되면 외곽지역의 생활주거지마저 관광중심지역으로 흡수될 상황에 있다.

3) 민속마을 보존위원회

이 마을에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민속마을〉로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자 뜻을 모아 〈민속마을 보존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민속마을〉인만큼 소멸되기 쉬운 민속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음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잇점을 살려 수익성을 높여보자는 데에도 그 목적이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존회(앞으로 약칭명칭으로 사용)는 그 구성원이 마을주민들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국가에서 1985년

13) S씨(남 : 60대)는 “새마을이라고 초가를 도당(양철)으로 바꾸라고 하여 바꾸니까 이번에는 민속촌이 되었다고 다시 초가로 바꾸라고 한다. 변소도 민속촌이면 옛변소이어야 하는데 신식으로 개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14)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행정당국(남제주군청)의 관리에 따르면 아무리 복원도 중요하지만 비위생적인 것은 과감히 절충해서 할 방침이며 복원계획시에는 민속학자나 역사가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에 낙안성(전라남도 승주군 소재로 민속촌임)도 보존회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어서 만들게 된 것”이라는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 보존회가 구성된 직접적인 동기는 행정당국으로부터의 하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존회의 결성준비 과정을 보면, 1986년 3월 20일에 발기하여 창립총회를 하고 임원선정을 하였으며 서류구비와 진단 그리고 등록허가만 되면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데, 현재(1986. 4) 등록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인가가 하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임원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 1명(이장), 부이사장 2명, 이사(총무와 재무 합쳐 11명), 감사 2명으로 되어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4-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관규칙을 작성하고 있다. 보존회에 가입한 세대수는 210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보존회에 가입한 주민들은 앞으로 보존회가 해야 할 일들과 역할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의견들은 대체로 마을의 경제적인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보존회를 이끌어가야 할 임원진들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가지 구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여러가지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보존회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마을의 민속문화재를 자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관광수입을 마을의 공동소득원으로 규정하여 공동관리하에 처리한다(예컨대 마을 입장료와 잇권이 높은 식당을 보존회에서 직접 운영). 셋째, 마을의 공동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민속마을”에 재투자한다(예컨대 성곽보수, 주차장 설비, 판촉활동 등). 넷째, 보존회가 당국이나 외부에 의한 활동보다는 자치적으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강화시킨다.

이상의 역할기대를 통하여 “민속마을” 주민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토박이들이 외부인의 상업활동과 외부의 잇권침투를 제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물리는 관광소득의 흐름을 주민들 다수의 공동이익으로 돌려보자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의 주민들은 보존회에서 추진하려는 계획들—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구상중에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반대입장에서 오히려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써 K씨(남: 40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존회에서 공동분배를 한다고 하지만 우선 마을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유지들은 투자 안하지,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 결국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게 될 것이 뻔하다. 기념품을 팔고 꿀파는 사람들이나 이익이 될까, 주민들은 농사짓기 때문에 민속촌이 된다해도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성을 보수해서 문을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만 할 것이다.” 또한 K씨(남: 30대)의 경우는, “이 마을의 근본문제는 만일 관광수입이 7백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판촉비로 5백만원이 나간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성곽에 있는 집을 철수하게 되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말한다.

이와같은 입장의 견해들은, 보존회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본이 미약하므로 결국 정부나 외부의 통제력 아래로 들어가 자치적 활동을 못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보존회는 허울 뿐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지 보존회에 대한 불신의 입장만이 아니라 이 마을이 관광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경험에 근거한 예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 관광체계에 따른 “민속마을”의 관광현상

여기서는 “민속마을”이 안고 있는 관광지화의 배경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관광현상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민속마을”은 〈관광지주민사회〉로서 관광객은 물론 관광중개자들의 촛점이 집중되는 영역이 된다. 따라서 관광체계 모델에 따라 각 범주들 즉 〈관광지주민〉 〈관광객〉 〈관광중개자〉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통하여 관광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관광현상변수들의 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관광현상들에 대한 분석은 결론적으로 관광이 “민속마을”에 미치는 영향(impacts)들로서 설명될 것이다.

1) 주민의 특성

관광지로서의 “민속마을”은 관광행위와 관광사업의 무대가 되므로, 관광사업 이외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은 이방인(outsider)의 위치에 있다. 즉 그들은 비록 관광객과 관광중개자들의 만남을 주시하고 있지만 생계활동면에서 직접적인 접촉과 이득을 얻지 못하는 제3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을 원주민들은 차츰 이방인으로부터의 변화를 보이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마을주민들 가운데는 내부관광중개자들의 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원주민들은 관광중개자들과의 ‘관광사업결탁’으로 간접적 관광소득을 얻기도 한다.

<표2> 생계활동의 관광관련 여부에 따른 마을주민의 분류

마을주민	생 계 활 동
원 주민	농업(당근, 유채, 잡곡, 무우, 밀감재배) 및 고사리채취, 무우생기리작업 축산업(비육우, 낙농) 품노동(과수원, 당근밭, 출발, 두엄작업, 집수리 등) 기타, 공무직(산화경방 등)
내부 관광중개자	상업 경영자 (식당, 식품가게, 꿀가게) 종업원* (식당, 꿀가게, 토산품점) 관광안내자 (식당, 꿀가게, 토산품점)

* 종업원은 대부분 20-30대 부녀자들이다.

이와같이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경제적 활동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활동에서도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는 예전부터 의례 또는 생계활동시에 맺어왔던 전통적 결속력(주로 혈연관계)이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따른 친목활동의 결속력으로 변모했음을 말한다. 즉 전통적 결속력보다는 대체로 상업활동을 하는 관광중개자들과의 친목활동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대립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내부

관광증개자들의 참여활동(기부활동 및 발언권 확대 등)에 따른 원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기도 하다(부정적 반응은 대립감정으로 후면에서 나타난다).

원주민과 관광객과의 관계에서 양자가 직접 부딪치는 경우는 이 마을의 관광중심지역인 도로주변에서 일어난다. 관광객을 구경하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동경과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작업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오가는 도로주변을 지나갈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한다고 한다. 부녀자들과 장년층의 경우도 관광객을 보고 부러움과 동시에 '현재로서는 불가능'이라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한다. 관광객과 주민과의 대표적인 부정적 접촉은 '지정가옥(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옛가옥)' 내부에서 나타난다. 이 마을에는 5채의 지정가옥이 있는데 그 곳에는 옛 주인의 이름이 안내판에 적혀있을 뿐 그 후손조차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단, 가옥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이 관리를 조건으로(무료) 허가받아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정가옥은 옛가옥으로서 보존되므로 관광객들은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구경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므로 낮에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있고 거의 집을 비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빈 집으로 착각을 하고 마음놓고 문을 열어보기도 한다. 이 때 숨어있다가피 잠자코 지켜보던 원주민들에게는 관광객들의 행동이 여간 불쾌하고 섭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주민들과 관광객들 간에 오해가 생기는 수도 있다.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위를 여러번 지켜만 보던 원주민이 참다 못하여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을 때 관광객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제주도 사람들 무뚝뚝하고 거칠고 불친절하다'는 등의 소문을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관광객들에게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원주민들에게는 누적되어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보는 관점은 다분히 비교행위적 평가로 나타난다. 이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도로주변에 나와서 관광객들의 행위비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야기한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국내관광객과 외

국인관광객들¹⁵⁾의 관광행위를 비교¹⁶⁾하면서 내국인들의 몰지각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기도 한다. 원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평가는 관광하는 진지한 태도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서, 외국인관광객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마을의 전모를 살피고, 구경하기 전에 반드시 양해를 구한다는 점이 주민들의 공통의견이었다. G씨(남: 40대)는 자신의 옛가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데, 꿀가게를 경영하는 상인과의 결탁으로 관광객들을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고 그 사용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집안에서 관광객들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는 “관광객들이 부엌에 와서 화장실을 찾는다 하면 심지어 굴묵(아궁이)에 와서 변을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컷 구경을 하고 나서는 ‘여기가 바로 쌍놈이 사는데다’라고 내뱉고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쩔수 없이 그 낡은 가옥에서 불편함과 불쾌감을 감수하며 살아야함을 하소연 하였다.

G씨의 경우와 같이 원주민들 가운데는 관광중개자와의 관계로서 ‘관광사업결탁’을 이루고 있다. 즉 원주민들은 옛가옥을 그대로 소유하므로써 주거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의 일부가 그 옛가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도로주변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한 원주민들 중에는 가게터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며, 발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관광중개자들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그들에게 팔거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 이들은 농사를 힘들여 짓지 않아도 쉽게

15) “민속마을”에 오는 외국인관광객은 내국인에 비해 아주 극소수(10% 정도)이다. 그들의 출신지는 일본과 미국, 유럽(독일, 프랑스)이 대부분이고, 주로 여름방학에 다수 몰린다고 한다. 일본인 관광객(재일교포 포함)들은 내국인과 구별이 어려운데, 대체로 단체관광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는 호텔안내자를 동반하기도 한다. 미국인, 유럽인(주민들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관광행위 비교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들은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가 단체관광보다 더 잦은 편이다. 이들은 도로나 자전거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비교적 젊은층이 돋보이나 대체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다.

16) 어떤 주민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마을에 와서 꿀목마다 찾아 다니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구석구석 살피고 가는데, 한국인관광은 ‘먹고 싸는 관광’이다”라고 말한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이 심화되면서 도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여가시간에 도로변의 상점과 식당주변에 모여 관광객들의 행위와 이들을 상대로 소득을 얻는 광경에 주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관광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아울러 마을의 장래에 대한 염려와 생계활동에 직면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해 예견을 논하기도 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로서 마을주민들은 자본이 많은 외부관광중개자들의 유입이 잦아진다는 사실과 앞으로 자신의 생계활동인 농업이 저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이 관광중심지역인 성안에 거주하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중심도로에서 벗어지는 관광버스와 경운기의 잦은 충돌사고이다. 따라서 도로 및 주차장 설비의 확장이 요구되는데 그럴 경우 농업에 이용될 토지가 관광지화에 따른 관광사업에 충당될 것이다(이미 중심도로주변의 밭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관광중심지역인 성안의 토지 매매와 임대는 외부관광중개자들의 유입과 관련되는 것으로 성밖의 외곽지역까지 관광지화의 변모는 급속도로 이어질 것이다.

원주민들이 관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그들이 〈관광지주민사회〉의 주인으로서 점차 이방인의 입장에서 벗어나 관광을 수단화하려는 적응 전략적 반응의 시도로 간주된다. 그 예가 바로 마을의 집단적 차원에서 결성된 〈민속마을 보존위원회〉인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존회의 역할 기대는 우선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잃었던 〈관광지주민사회〉로서의 '주인의식'을 주민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소득증가로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지 모르나 그 역할기대가 반드시 올바른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광객의 특성

“민속마을”을 포함한 제주도는 비교적 상류층 관광객의 관광지로서 주목받아 왔지만 현대사회의 ‘대중관광’ 일변도에 따라 중산층 관광객들로 확대

되고 있다. 그대신 제주도 관광은 신혼여행이나 특별한 계기 또는 '관광계' 등에 의한 장기간 비용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관광객층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바, 관광현상에서 나타나는 관광객의 '관광행위'도 대중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의 신분이나 연령층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체나 팀을 이루는 일정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일률적인 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의 관광행위도 신분이나 연령, 관광명목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관광중개자들에 의한 관광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과정을 겪게 된다.

제주도 내에는 “민속마을” 외에도 관광명소로 지정된 곳이 많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주도 전역의 관광명소를 모두 둘러 보는 것으로서 관광계획을 세운다. 이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제주도 관광을 위한 정보를 관광중개자들(예컨대 여행사에 문의 또는 예약)로부터 얻고자 한다. 그런데 “민속마을”은 관광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주도 내의 관광정규코스¹⁷⁾에 속하지 않아 관광중개자의 임의의 선택대상이 되고 있다. 즉 관광중개자들의 작심과 행동 여하에 따라 “민속마을”이 관광코스¹⁷⁾에 편입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속마을”에 들어오는 관광

17) 제주도 관광안내 팸플렛에 의하면 관광교통회사마다 코스규정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숙박일정과 관광코스¹⁷⁾에 따라 대체로 비슷하다. H관광회사의 팸플렛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2박3일 기준).

일 정	A코스	B코스
제1일	출발지 각 공항 - 제주공항 - 호텔(제주시)	출발지 각 공항 - 제주공항 - 서귀포
제2일	호텔 - 삼성혈 - 용두암 - 항몽유적지 - 협재쌍용굴 - 산방굴사 - 천제연폭포 - 농원 - 외돌개 - 천지연폭포 - 정방폭포 - 서귀포 칼호텔	호텔 - 정방폭포 - 천지연폭포 - 외돌개 - 농원 - 천제연폭포 - 산방굴사 - 협재쌍용굴 - 항몽유적지 - 용두암 - 삼성혈 - 호텔(제주시)
제3일	호텔 - 5·16도로 - 수악계곡 - 성관악 - 산굼부리 - 비자림 - 성산일출봉 - 만장굴 - 모총사 - 목석원 - 제주공항 - 출발지 각 공항	호텔 - 모총사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비자림 - 산굼부리 - 목석원 - 제주공항 - 출발지 각 공항

* “민속마을”을 경유하는 경우는, 위의 A코스에서는 산굼부리에서 성산일출봉으로 가는 코스이거나 B코스의 성산일출봉에서 산굼부리로 가는 코스 중에서도이다. 따라서 정규코스대로 비자림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민속마을”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

객들은 대체로 단체관광객(학생, 일반인)과 신혼부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류해보면 <표3>과 같다. <표3>은 4-5월에 나타난 관광객 구성으로서 시기에 따라 주요관광객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

<표3> “민속마을”의 국내관광객 구성

팀구성 성분		연령층	관광명목	팀구성 크기	교통수단
주요관광객	학생(교사, 교수 포함) (중, 고등학생) (대학생)	10대 20대	수학여행 졸업여행	단체(30-500명)*	관광버스(대형) 스쿨버스
	신혼부부	20-30대	신혼여행	단체(10-20쌍)** 개인(2-4인조)	관광버스, 택시, 렌트카(승용차)
	중년일반인 (주부, 직장인 등)	40-50대	친목관광	단체(10-50여명)	관광버스, 렌트카 (소형버스)
	노년일반인 (무직, 농업 및 기타)	60대이상	효도관광** 친목관광	단체(10-50명)	관광버스, 렌트카 (소형버스)
기타관광객	공무원	20-50대	연수, 답사	단체(30-200여명)	관광버스
	제주도내 국민학생/유치원생	6-13	답사, 소풍	단체(20-100여명)	관광버스, 스쿨버스
	가족	가장 나이 30-60대	레저관광	가족단위(3-10여명)	렌트카, 자기용, 택시
	친구(씨클, 직장)	20-30대	도보여행, 휴가관광	단체(5-20여명)	시외버스, 관광버 스, 렌트카, 도보

* 팀구성 숫자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대략적인 숫자이다.

** 효도관광의 경우는 신혼부부팀의 단체구성과 마찬가지로 패키지관광이 대부분인데 개별적으로 오더라도 교통수단상 단체로 행동하게 된다.

“민속마을”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대체로 팀구성 성분과 연령층에 따라 공통된 관광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의 주요관광객층의 관광행위에

대한 사례로부터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A〕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관광객들은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이라는 명목하에 학교행사의 일부로서 관광을 온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은 보통 소풍과는 달리 비교적 장거리에 있고 비용부담이 드는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관광을 선택하는데는 쉽지않은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제주도관광을 선택하여 결정된 학생들의 사기는 보다 더 고조되어 있다. 학생관광객들 가운데서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관광행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례1) 어느 여자고등학교(충청지역)에서는 수학여행으로서 관광버스 9대를 대절하여 관광을 하러왔다. 오전 11시쯤 이 마을 남쪽어귀로 연이어 들어오는 관광버스에서는 학생들의 흥에 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관광버스가 구학교터 주차장에 뿅뿅히 들어서자, 학생들 500여명이 별떼같이 쏟아져 나왔다. 울긋불긋하게 바지와 모자를 쓴 차림새의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도로주변으로 각기 흩어지기 시작했다. 일부의 학생들은 곧바로 지도교사의 인솔로 마을 안쪽의 향교와 도로주변의 관광관람초가들을 둘러보고, 일부는 우선 가게로 들어가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사들고 나오면서 천천히 도로를 따라 구경을 했다. 이 마을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팽나무와 느티나무 주변에 이르러서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했다. 그리고 〈관광관람초가〉를 비롯하여 사진 찍을만한 장소를 둘러싸고 정신이 없었다. 기념품가게에는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이것저것 만지다가 결국 우편엽서카드와 모조품 돌하르방이 달린 열쇠고리 또는 제주도기념 문귀가 새겨진 장식품 등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은 기념품들을 구입했다. 학생들은 식당 앞에 이르러서 안을 기웃거리며 쳐다볼 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어떤 학생들은 〈관람초가〉 앞에 붙은 안내판을 열심히 베껴가기도 했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 마을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며 “교과서에서만 보고 배우다가 실제로 와서 보고 들으니깐 실감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로주변을 따라 성안의 경계선에 이르는 초가들을 구경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모여들었다. 즉 40분쯤 경과한뒤 자기 흠여졌던 학생들이 관광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타자 다시 흥에 겨운 노래소리와 함께 주차장이 비어났다. 꼭 1시간만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민속마을”관광이었다.

〈사례2〉 대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 2대가 이 마을 남쪽입구로 들어왔다. 그들은 남녀 대학생들로, 교수 두 분의 지도를 받아 졸업여행을 제주도도로 온 것이었다. 40여명의 대학생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관광버스 안내양으로부터 인계받은 〈관광관람초가〉의 안내자의 인솔로 지정된 초가로 들어갔다. 일부의 학생들(20여명)은 관광안내자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 반면 나머지 학생들은 제각기 흠여져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관람초가 내에 기념메달을 새기는 곳에서 어떤 학생들은 메달에 기념일과 이름을 즉석에서 새겨 구입하기도 했다. 관광안내자의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은 단체사진을 두어번 찍고, 교수님을 모시고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서 30여분 동안 식사(돼지불고기, 좁쌀막거리, 빈대떡 등)를 한 뒤 학생들은 자기 흠여져 일부는 도로를 따라가면서 구경을 더하고 일부는 관광버스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후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로서, 그들이 3박4일의 일정으로 배(카페리호)를 타고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피곤한데다 밤을 새워 놀았기 때문에 막상 구경하러 돌아다니려니 구경할 기운이 없다는 것이었다. 관광버스로 돌아오는 학생들 가운데는 꿀상자와 토산품(정동줄기모자 등)인 비교적 비용부담이 드는 상품을 구입하여 들고 오기도 했다. 이 학생들도 역시 1시간 남짓 머물다가 “민속마을”을 서둘러 떠났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관광객들 가운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경우가 비교되고 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관광안내자가 따로없이 도로주변뿐 아니라 마을 내부까지 구경할 기회를 갖고

주로 식품가게와 기념품가게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한편, 후자의 경우는 관광안내자(〈관광관람초가〉내의 꿀가게의 종업원 혹은 안내원)로부터 안내를 받아 지정된 관람초가와 식당을 출입하며, 토산품 등 비교적 비용부담이 드는 소비활동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B] 다음은 제주도관광의 꽃¹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관광객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신혼부부관광객들은 관광지인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관광안내 일체의 예약을 하고,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도 ‘관광의뢰’를 통하여 관광안내자의 인솔에 절대적 의존상태로서 머물게 된다.¹⁹⁾ 따라서 “민속마을”에 들어오는 신혼부부관광객들은 대부분 택시와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다. 즉 그들은 관광일정 동안 제주도 전역의 관광안내를 택시기사와의 계약으로 의뢰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태운 택시는 “민속마을”로 들어오자마자(대체로 북쪽으로 경유) 곧바로 〈지정관광관람초가〉들 중의 어느 한 곳에 멈춘다. 그러면 그곳의 관광안내자가 나와서 택시기사로부터 카메라를 인계받고 신혼부부를 안내하기 시작한다. 관람초가 내부의 민예품들을 중심으로 안내설명이 끝나면, 민예품과 초가, 돌담, 유채꽃 등을 배경으로 안내자의 지시에 따른 자세로 사진을 찍는다. 이 때 신혼부부들이 거의 안내자의 제주도 사투리에 매료된 듯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10여컷의 사진을 찍은 뒤 신혼부부는 안내자의 안내(사진을 찍을 때와 같이 거의 지시에 가까운)에 따라 관람초가 내의 꿀가게로 들어간다. 사실 대부분 〈관광관람초가〉안에 설치되어 있는 꿀가게는 마치 초가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18) 제주도가 관광명소로 더욱 알려지게 된 것은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로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신혼부부들은 첫출발의 꿈에 부풀어 있는 특별한 관광객으로서 그야말로 피어나는 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관광중개자들이 이루는 관광사업들은 소비성이 높은 신혼부부들을 겨냥한 관광하부구조(호텔숙박시설, 교통시설, 그밖의 각종 서비스시설)들이 대부분이다.

19) 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이라는 명목상 순조롭고 안락한 여행이 되기를 원하므로 편리한 교통수단과 관광유람, 편안한 호텔숙식 등을 위해 비용부담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절대적인 ‘관광의뢰’를 한다.

민예품 도구처럼 당연히 있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꿀가게 안에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꿀차를 신혼부부에게 대접하면서 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마침 신혼부부에게는 집에 돌아갈 때 준비할 선물로서 제주도산 토종꿀이 안성마춤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신랑신부는 꿀을 사기로 결정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계면쩍은 표정으로 떠날 때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둘다 사지않기로 결정을 보고 빈손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들이 친절한 꿀선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부담보다 '그 꿀이 가짜일 것'이라는 점과 '어디서든 구입가능한데 멀리 운반할 필요없다' 혹은 '다른 선물을 택한다'는 구실이 있지만, 더욱 큰 이유는 자신들이 관광안내자로부터 결국 꿀가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 '마치 속은 듯한' 느낌 때문이다(신혼부부 제보). 어떤 신혼부부들은 지정된 관람초가에서 구경을 마치고 택시기사가 안내하는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식당코스를 밟는 경우는 신혼부부 가운데 일부(30% 정도)에 속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관람초가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으로 이 마을을 떠난다. 그것으로서 "민속마을"에 들렀던 흔적이 되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의 주요관광행위는 사진촬영이다. 관람초가와 그 안에 진열된 민예품들을 배경으로 거의 관광안내자의 연출 그대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신부가 물허벅을 등에 지고 구부린 모습, 신랑신부가 함께 멧돌질을 하는 모습, 돌담 뒤에 기대선 모습, 노가리나무 구멍에 얼굴을 내민 모습, 유채꽃 속에 파묻힌 모습, 돌하르방을 사이에 두고 둘이 손잡은 모습 등등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이 마을에서뿐 아니라 제주도내 어느 관광명소를 찾아가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다른 관광명소에서는 택시 기사가 사진 촬영 담당자가 된다).

{C} 친목관광과 효도관광이라는 명목하에 관광을 오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관광객들의 행위에는 일련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친목을 통한 계모임이나 일정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관광비용은 개별부담

보다는 관광계²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관광을 위한 계모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옷차림은 촌부의 평상복 차림에서 도시풍의 화려한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단체 주부관광객들은 똑같은 모양과 색상의 한복을 단체복으로 입고 오기도 한다. 노년층관광객 가운데는 친목관광 이외에도 자녀들이 비용부담한 이른바 효도관광을 통해 관광을 온다.

중노년층의 단체관광객 팀들은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민속마을”에 도착하자 안내자의 인술을 받아 줄을지어 〈관광관람초가〉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들은 숫자가 워낙 많고 쉴 새없이 흥분한 상태로 소리 지르고 우왕좌왕하므로, 안내자는 마이크를 대고 지휘봉을 휘두르며 정렬시키느라 애를 썼다. 이 때 안내자는 제주도 사투리로 이 관광객들을 집중시키는데 관광객들이 사투리 흥내를 내며 모여들므로 이 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갖는다. 안내를 끝까지 받으며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노인층에서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서둘러 식당에 들어간다. 초가 구경과 풀가게의 코스까지 일단 끝난 뒤에는 각기 흩어졌다가 도로주변으로 몰려 나와 각 식당으로 일제히 들어간다. 이때에도 각 식당에 속한 관광안내자들이 손님들을 소속 식당으로 안내한다. 식당 안에서는 돼지불고기와 좁쌀막걸리를 비롯한 향토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술이 얼근히 취한 관광객들 중에는 식당에서 들려주는 테이프(카세트) 노래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한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중노년층 관광객들의 주관심은 이 마을 식당에서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과 여흥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을 관광객 구성원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관광명목의 의미하는 바대로 그들의 관광행위를 소비활동(여기서 관광객과 관광중개자의 관계가 드러난다)에 중점을 두고 분류하였다(〈표4〉참조). 이 마을에서 꼽히는 관광매력 가운데 하나로는 구경거리 이외에 향토음식(돼지불고기, 메밀국수, 좁쌀막걸리, 빈대떡 등)이 있으므로 다수의 관광객이 식당에 들

20) 서울의 S동네 부녀자회에서는 1년을 단위로 비용부담이 적은 한도 내에서 개인당 얼마씩 모은 것으로 관광을 하러 다니는데 이번에 제주도 관광에서는 개별부담을 더 보태어 왔다고 한다.

〈표4〉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행위

명목	구성원	행위	
수학여행 졸업여행	중고등학생	다수=군것질 일부=기념품구매	개별적 구경 (관광관람초가, 지정가옥, 향교, 마을내부 등), 사진촬영 관광안내자의 안내에 의한 구경 (관광관람초가 및 지정가옥의 일부 관람), 사진촬영
	대학생	다수=식당(식사) 일부=토산품구매	
신혼여행	신혼부부	다수=사진촬영 꽃상품구매 일부=식당(식사)	
친목관광 효도관광	중노년일반	다수=식당(식사, 여흥) 일부=토산품(꿀, 버섯 등)	

리는 관광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전통마을’과 ‘토산품’의 관계에서 주는 이미지에 따라 토산품구매(특히 꿀구매)에 의한 소비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시즌은 대체로 성수기(4월-6월초순/7월중순-8월말/9월중순-11월말)와 비수기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가 보통 봄, 가을로 알려져 있지만, 요즈음에는 사계절에 따른 제주도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봄, 가을에는 신혼부부들이 대다수이고 성수기를 피해 친목, 효도관광 등 단체관광이 몰리며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민속마을”의 경우에는 3월말-4월에 주로 노인층으로 구성된 효도관광과 친목관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5월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학생과 중년층의 단체관광객이 붐볐다. 따라서 군것질하는

학생들로 가게마다 혼잡을 이루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채색의 노년층 옷차림에서 화려한 젊은층의 옷차림으로 밝아졌다(뿐만 아니라 벌거벗었던 팽나무, 느티나무가 연초록 나뭇잎으로 뒤덮어져 도로주변이 한층 돋보인다). 한편 신혼부부 관광객은 연이어 (3, 4, 5월)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이 마을에 돌아왔다. 즉 안내자가 한 쌍씩 안내를 해주던 것이 5월에 접어들자 여러 쌍을 한꺼번에 안내해 줄 정도로 증가했다. 하루 중에서 이 마을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을 전후로 (11시-1시 사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이 제주도 향토음식 고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은 “민속마을”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마을을 관광코스에 포함시킨다(사실은 택시기사나 관광알선자 등의 제안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속마을”에서 나타나는 관광현상 가운데, 관광객들의 관광행위에 의한 영향(impacts)들은 관광객과 관광중개자의 관계뿐 아니라, 관광객과 원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중개자를 통한 ‘관광의뢰’로 제주도관광을 할 때 그들은 제주도 내의 관광중개자들(특히 교통수단 안내자들)을 제주도인으로서 육지인과 구별을 한다. 그러나 일단 이 마을에 도착을 하면 관광객들은 다시 그 관광중개자들(신혼부부일 경우 예컨대 택시기사)을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이 마을내의 원주민과 구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관광관람초가>의 안내자(제주도 사투리를 유난히 사용하는)를 통하여 처음으로 이 마을원주민과 실감나는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관광객들은 이 마을이 (민속마을)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토속적인면을 가옥이나 민예품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서조차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자들이 제주도 사투리로 우스갯소리를 하면 관광객들은 그 사투리에 매료되어 한 두마디 정도 외워서 같이 응답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만났던 사람으로 여기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마을 외부에서 온 관광중개자들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안내자들(일부는 예외)은 마을주민이 아니라 서귀포나 제주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위해

이 마을에 임시 거주하거나 출퇴근하고 있다. 실제의 원주민들은 관광객들과 그들이 원주민으로 여기는 상업종사자(안내자포함)들과의 만남을 지켜보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원주민과 상인들이 이 마을 원주민을 대표한다고 여기게 된다. 이와같은 관광객들의 착각은 관광중개자들의 '연출적 관광유도'에 의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로 원주민과의 부정적 관계를 초래하기도 한다.

3) 관광중개자의 특성

이 마을의 관광중개자들은 다음 <표5>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외부관광중개자와 내부관광중개자로 나누어진다.

<표5> “민속마을”의 관광중개자

	관광중개자 역할	관광중개자 소속
내 부 관광중개자	상업경영자	식당(5/6) 식품가게(8/15) 꽃가게(2/7)
	종업원	식당(32/36) 꽃가게(3/30) 토산품점(2/7)
	관광안내자	식당, 토산품점, 꽃가게(5/50)
외 부 관광중개자	행정계획입안자	면, 군청, 도청, (문공부)
	관광여행사	도내, 국내여행사
	관광교통수단담당자	도 관광여행사및 운수업체
	- 운전사	- 관광버스, 택시, 렌트카
	- 안내양	- 관광버스
	상업경영자	식당, 식품가게, 꽃가게, 토산품점, 기념품점
	종업원	꽃가게, 토산품점, 식당
관광안내자	식당, 토산품점, 꽃가게	

() 내부관광중개자수의 비율

이는 마을주민들 가운데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내부관광중개자로 간주하고 외부인으로서 이 마을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외부관광중개

자로 간주함을 말한다. 이와같은 구분은 원주민과 관광중개자와의 관계를 살피는데 있어 중요하다. 즉 마을주민 가운데 생계활동의 영역에 따른 갈등이 바로 원주민과 내부관광중개자 사이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고, 관광중개자간의 관계에서도 내부관광중개자와 외부관광중개자의 결탁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광중개자의 내외구분은 마을주민의 생계활동에 따른 구분과 마찬가지로 관광업에 종사하는가의 여부와 이 마을 주민인가의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외부관광중개자 가운데 행정계획입안자 즉 행정당국을 포함시킨 것은, 비록 안내자와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마을을 〈민속마을〉로서 관광지의 실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광중개자임에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광여행사도 교통수단 담당자나 안내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관광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관광중개자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교통수단담당자 즉 운전자(택시기사) 그리고 상업종사자들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민속마을”에서 관광중개자들의 활동무대는 도로주변의 〈남제주군지정 관광관람초가(관광관람초가의 정식명칭)〉를 비롯하여 식당과 식품가게들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관광객들의 관광무대가 된다. 특히 관광관람초가는 관광객들의 구경을 위해 따로 지정해 놓은 초가로 모두 여섯 군데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꿀가게가 붙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꿀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 관광관람초가의 내부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가능한 민속마을의 면모가 드러나도록 초가와 민예품을 구입하여 진열하고 단장한다. 이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제주도 민속마을의 관광매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며 꿀가게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려는 노력이다. 또한 꿀가게마다 종업원겸 관광안내자들을 고용하여,²¹⁾ 관광객들에게 관람초가를 안내해주고 사진촬영

21) 각 꿀가게마다 3~10명 정도의 20대 미혼 여성들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귀포나 다른 지역 출신들로서 이 마을에 임시 거주하거나 출퇴근을 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남자안내원을 고용).

을 해주는 동시에 손님들을 끌가게로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끌가게 안에서는 다른 종업원이 끌차를 마련했다가 관광객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꿀상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와같이 관광안내에서 꿀판매로 변신하는 관광중개자들의 방법은 자신들이 “민속마을” 원주민인양 가장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고유성(authenticity)”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민속마을” 원주민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고유성 중의 하나는 바로 제주도 사투리이다. 일부 상인들의 억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제주도 방언과 실제로 초가에서의 거주형태 등을 관광객들은 원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중개자들은 그러한 관광객들의 기호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연출적 관광유도’이다.

이 마을에서는 관람초가와 더불어 있는 끌가게가 일곱 군데 정도 된다. 토산품점에서도 꿀상품을 판매하지만 이 끌가게에서는 꿀상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끌가게에서는 관광객 손님들을 서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운전사를 통한 고객유치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광객들은 이 마을에 도착하면 상인들과 안내자들을 모두 이 마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운전기사를 외부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원주민에 대한 신뢰여부는 외부인인 운전기사들의 언급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내부관광중개자들은 외부관광중개자들과 결탁(‘관광사업결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전자가 후자에게 관광객 유치조건으로 판촉비를 부담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의 경우 단체관광객 손님을 지정 식당으로 안내해주는 댓가로 관광회사나 운전기사, 안내양들에게 판촉비를 지불하고, 끌가게의 경우 운전기사가 모셔온 관광객이 꿀상품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의 30%를 프리미엄으로 그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택시기사들마다 단골 끌가게가 있어 그들은 그 끌가게가 속해있는 관광관람초가로 관광객을 안내하게 된다. 결국 관광객은 이 마을에 도착하여 떠날 때 까지 자신이 의뢰했던 운전기사가 안내하는대로 지정된 한 곳을 구경하게 된다. 간혹 관광객이 “여기 말고 다른데도 구경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하면 안내자나 운전기사들은 “다른데도 여기나 마찬가지로요, 시간도 딱딱

한데요”라고 말한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말 한마디는 관광객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꿀가게에서 관광객이 꿀상품을 고르면서 몹시 망설이자 주인은 손님에게 약초꿀을 권하였다. 그러자 같이 왔던 손님의 한 친구가 “아까 그 운전기사 양반도 얘기하드라 이 약초꿀이 이 집밖에 없다고”라고 말했다. 망설이던 손님은 “그래? 그럼 그걸로 사가지”라고 구매의사를 결정하였다. 특히 택시기사들이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노력한 댓가이기도 하다. 제주도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의 주요고객은 신혼부부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관광안내와 사진촬영,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택시의 청결및 내부분위기 조성(제주도 내의 택시들은 깨끗하고 내부에 핑크빛 카텐등의 장식이 꾸며져있다)에서부터 기사의 복장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세련되어있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조합이외에도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협동단결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친목단체의 경우를 보면, 개인택시운전사 1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정여행사와 연락을 취하여 관광객 명단과 숙소를 알아내고 그 곳으로 관광객과 직접연락을 하여 제주도 관광안내의 일체를 의뢰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적 강화가 잘되어 있어서 서로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불규칙한 고객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관광객 이동의 키를 잡고 있으므로 제주도내 관광명소의 식당과 숙박업소, 유흥업소, 토산품점 등의 관광업종사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인들은 운전기사들에게 후한 대접을 베풀어야 한다. 운전기사들은 관광객을 신교 “민속마을”을 들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²²⁾ 그리하여 이 마을의 관광업종사자들은 택시운전기와 관광여행사 등의 관광중개자들과 결탁을 필수적으로

22) 어떤 운전기사에 의하면, 마음 내키면 들르고 때로는 지나쳐버리기도 하는데 이 마을이 정규관광코스가 아니고 교통상 경유가 곤란할 때가 있으므로 1주일에 한번정도 들르게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1주일에 두 세번 경유하고 있다.

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관광중개자들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내부관광중개자간의 관계에서도 관광중개자들이 원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이따금씩 원주민들과의 친목도모와 향연을 베풀고 마을공공기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그만큼 이 마을에서의 상업활동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원주민들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관광객의 잦은 출입으로 도로주변이 혼잡하여 불편을 겪는 원주민과 관광객이 뿔뿔수룩 수익이 증가하는 상업종사자들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더우기 같은 마을주민으로서 원주민과 내부관광중개자의 관계는 마을의 공공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목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현상은 관광이 초래하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갖는 “민속마을”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중개자들의 역할여하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마을에서의 관광안내자의 역할비중은 마을 원주민을 대표할 정도의 위치(관광객과의 직접적인 접촉, 안내의 기회)에 있으므로 매우 크지만 그들이 관광객들을 상업활동의 잇권으로 연결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광안내자의 유무가 관광객의 소비활동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관광객 가운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식당과 꿀가게의 출입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관광안내가 없고 대학생들 비롯한 일반관광객의 경우는 식당을 반드시 들르기 때문에 관광안내자가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안내자는 자신이 속한 식당과 꿀가게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써 영리추구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고 이러는 가운데 연출적 관광유도가 이루어진다. 관광안내자들이 이 마을 출신이 아니라는 점은 그들이 제주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원주민과의 괴리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관광안내자의 원주민으로의 가장 큰 실제 원주민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민속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관광지주민사회로서 제주도의 “민속마을”에서 나타나는 관광현상을 관광체계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앞서 관광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와 아울러 관광현상을 접근분석하는데 필요한 모델로서 관광체계의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즉 관광연구에 있어 기존의 분석대상 범주로서 <주인(Host)>과 <손님(Guest)>의 두 범주이외에 <관광중개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첨부하여 보다 체계적인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광하부구조(관광정보매체 및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부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광현상의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광현상의 분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민속마을”에서 나타나는 관광현상을 관광체계에 입각하여 분석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원주민과 관광중개자간(관광중개자간의 결합 포함)의 ‘관광사업결탁’으로 나타난다. 이는 관광지주민사회로서 불가피한 ‘관광개발 및 산업’이라는 변수가 “민속마을”에서 ‘보존’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가운데 작용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용어는 ‘관광유도’를 위한 것으로서 관광지화의 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용어와 다를 바가 없다. “민속마을”에 대한 국가적 지정보호 정책에 따른 관광지화로 <민속마을보존위원회>라는 조직결성과 더불어 공공연한 경제적 이권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 집단적으로는 행정 당국을 비롯한 외부관광중개자와의 관계를 통하고, 전통가옥과 토지를 고수하던 원주민 개별적으로는 내부관광중개자(혹은 외부관광중개자)와의 관계로써 ‘관광사업결탁’에 의한 이해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민속마을”의 ‘보존’은 이 양자의 방패막이 되고 있는 셈이다.

2. “민속마을”에서의 관광현상은 잠정적으로 관광의 영향(impacts)들을 동반하는데 이들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 경제적 측면: 이 마을이 관광지화됨에 따라 상업성이 농후해지면서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관광행위가 식당과 가게들을 중심으로 소비행위로서 나타나므로 원주민들에게는 일상적 소비생활의 전모로 투영될 수 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은 현금부족으로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농업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더구나 '맛전치기' 장사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으므로 한층 현금에 대한 강한 요구와 농업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릴때마다 가게는 호황을 이루고 식당에서는 돈을 끌어 모으는 듯 해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종사자들은 농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금 수요로 결국 생계활동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마을의 관광지화에 부응하는 경제적 적응전략으로서 마을집단적으로는 〈민속마을보존위원회〉라는 결성으로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상품화하려는 관광중개자들과의 결탁에 의한 상업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B] 사회문화적 측면: 〈민속마을〉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가해진 행정적 조치는 가옥에 대한 제재로서 주민생활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옥에 대한 보수와 신축에 제재를 둔 것은, 전통성의 증거로서 그 가치가 남는 것이 건축물로서 대표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그러한 〈민속마을〉 보존정책에 따른 제재와 불확실한 시행책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미확정의 불안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다. 마을주민들의 '현대식 주거생활' 또는 '문화생활'에 대한 바램은 일부 내부구조 수리에 의한 가옥변형만으로 충족될 수 없고, 전통가옥에 대한 불규칙한 기준에 따른 가옥보수는 오히려 전통성 보존의 가치부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농업과 관광사업의 대조적 현실에 따른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서의 갈등은 토박이로서 농업에만 종사해온 부모세대의 불안으로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마을에서의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전출입이동이 잦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C] 정치적 측면: 마을주민 가운데 농업과 상업의 생계활동에 따른 이

해관계로부터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 행정상의 의사결정권이 일부 내부관광증개자들의 기부활동을 통한 영향력과 참여로 그들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기부활동은 마을 공공행사나 국민학교 육성회 후원, 또는 공공시설물 보조로 이루어지고, 식당을 이용하여 잔치를 종종 베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원주민들은 그들의 친목활동을 통하여 결속력을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대립감정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마을 임원 구성원들과 이들을 둘러싼 추종자 간에는 관광지화에 따르는 마을내부에서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마을 외부와의 정치적 노선에 따른 분파로 대립적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전의 혈연관계로 주로 형성되었던 집단결속력이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집단결속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위주로 생계활동을 해오던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혈연중심의 결속력이 점차 의무적인 기능(관혼상제의 의례시 참여)을 제외하고는 약화되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마을주민들의 실제적인 친목관계는 관광지화에 바탕을 둔 경제적 잇권에 따른 정치적 노선에 의한 집단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체제를 통한 “민속마을”의 관광현상들로부터 비롯되는 관광의 영향(impacts)들은 결국 관광지주민사회를 변모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속마을”에서 보여주는 〈민속마을보존〉이라는 표제는 원주민들이 갈망하는 현대화의 욕구충족을 위해 “현대화의 기금(fund)”을 제공해주는 경제적 소득원이 되지만, 이를 얻기 위해 관광지화를 추구하고 이에 따라 ‘관광매력’과 ‘관광유도’를 향한 ‘보존’(‘관광개발’의 의미)을 통하여 ‘전통성’을 재현해야만 하는 아이러니를 빚어내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지주민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광현상들에 대한 적응전략으로서 원주민들이 관광객과 관광증개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관광사업결탁 및 생계활동 전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속마을”에서는 원주민들의 전통문화가 관광배경으로 무대화되고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가짜문화(pseudo culture)”를 창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성을 재현해야만 하는 원주민들은 갈망하던 현대화는 커녕 오

히려 “허위민속문화(phony-folk culture)”(J. Forster, 1964. J. Jordan, 1980 참조)가 주민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게섹터, 찰스 (Gesheker, Charles L.) 1978 “국제관광과 아프리카의 저발전”, 전경수(번역), 1987 : 227-250.
- 그라이번, 넬슨 (Graburn, Nelson) 1983 “관광인류학”, 전경수(번역), 1987 : 31-55.
- 그린우드, 데이비드 (Greenwood, David) 1977 “문화의 상품화: 상품화된 문화로서의 관광에 대한 인류학적 시각”, 전경수(번역) 1987 : 185-198.
- 김영돈 1983 “정의고을(1)”, 〈탐라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217-227.
- 1987 “정의고을(4)”, 〈탐라문화〉 제6호, pp. 279-292.
- 내쉬, 데니슨 (Nash, Dennison) 1977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관광”, 전경수(번역) 1987 : 79-100.
- 레트, 제임스 (Lett, James) 1983 “카리브해 전세요트관광의 유희적 측면과 리미노이드 측면”, 전경수(번역) 1987 : 121-146.
- 맥켄널, 딘 (MacCannell, Dean) 1976 “무대화된 고유성”, 전경수(번역) 1987 : 57-78.
- 베블렌, 톨스타인 (Veblen, Thorstein) 1981 〈유한계급론〉 정수용역, 광민사.
- 심상도 1986 “관광현상이 원주민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제5호, pp. 71-93.
- 이상철 1987 “제주사회변동론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3): 31-65.
- 전경수 1987 〈관광과 문화: 관광인류학의 이론과 실제〉(편역), 까치.
- 1987 “국제관광의 인류학적 고찰”, 〈관광과 문화〉, pp. 9-27.
- 제주신문 1985. 12. 2 (4면)
- 호이징하, 요한 (Huizinga, John) 1955 〈호모루덴스〉, 김윤수역, 1984, 까치.
- Adams, Kathleen M. 1984 “Come to Tana Toraja, ‘Land of The Heavenly Kings’ Travel Agents as Brokers in Ethn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ATR)*, V. 11(3), pp. 469-485.
- Cohen, Erick 1979 “Rethinking the Sociology of Tourism”, *ATR*, V. 6(1), Jan /Mar, pp. 18-35.
- Ervin, Alexander M. 1980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Approach in Anthrop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Recent Change of Native Alaska”,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 36(1), pp. 49-70.
- Forster, J. 1964 “The Sociological Consequences of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 : 217-227.
-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 Greenwood, Davydd J. 1972 “Tourism as an Agent of Change: A Spanish Basque Case”, *Ethnology*, V. 11(1), pp. 80-92.
- Jafari, Jafar 1977 Editor’s page, *ATR*, V. 5, pp. 6-11.
- 1981 Comment on D. Nash(1981), *Current Anthropology*, V. 22(5), pp. 471-472.
- Jonson, Allen W. 1978 〈Quantification in Cultural Anthropology〉, Stanford Univ. Press.
- Jordan, James W. 1980 “The Summer People and the Natives: Some Effects of Tourism in a Vermont Vacation Village”, *ATR*, V. 7(1),

pp. 34—55.

de Kadt, Emanuel 1979 *〈Tourism : Passport to Development?〉* Oxford Univ. Press.

Laflamme, Alan 1979 “The Impact of Tourism : A Case From the Bahama Islands”, *ATR*, V. 6(1), pp. 137—148.

Lewis, G. 1972 *〈The Virgin Islands〉*, Evanston : Northwestern Univ. Press.

Mckean, Philip F. 1977 “Towards a Theoretical Analysis of Tourism : Economic Dualism and Cultural Involution in Bali”, *〈Hosts and Guests〉*, V. Smith ed., pp. 133—152.

Nash, Dennison 1978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ourism”, *〈Tourism and Economic Change〉*, V. Smith ed., pp. 133—152.

————— 1979 “The Rise and Fall of Aristocratic Tourist Culture—Nice : 1763—1936”, *ATR*, V, 6(1), pp. 61—75.

————— 1981 “Tourism as an Anthropological Subject”, *CA*, V. 22 (5).

Nuñez, Theron 1963 “Tourism, Tradition and Acculturation”, *Ethnology* 2 (3).

————— 1977 “Touristic Studies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Hosts and Guests〉*.

Pieper, Josef 1963 *〈Leisure : The Basis of Culture〉*, Random House, Inc.

Smith, Valene (Ed) 1977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 1979 “Women : The Taste—Makers in Tourism”, *ATR*, V. 6 (1).

————— 1980 “Anthropology and Tourism : A Science—Industry Evaluation”, *ATR*, V. 11(1).